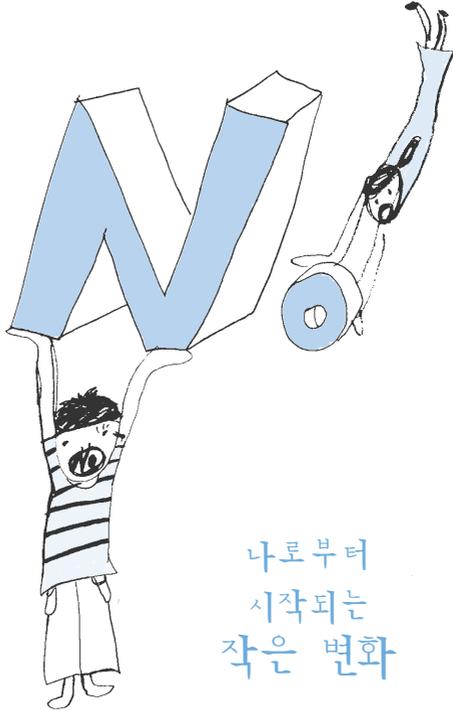


성매매,
JUST SAY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본 자료집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제작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결과입니다.
자료집의 의견은 제작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Contents

- 4 'NO' 라고 말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위해 !!

- 7 성매매, 서로 다른 현장들!

 - 8 사건과 사고, 성매매를 둘러싼 끊임없는 말! 말! 말!
 - 13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 17 성구매자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

 - 18 ATM기를 찾는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어느 날
 - 22 성매매에 관한 Q&A
 - 32 성구매를 안 하는 그들만의 이유들

- 35 '나' 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 36 '진짜 사나이' 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 48 망설임 필요 없어 : Just say NO!!

- 51 부록

 - 53 • 처음으로 성구매를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53 • 20대 남성들은 왜 성구매를 할까요?
 - 54 • 성매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55 •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57 •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무엇이 변화하였나요?
 - 59 • 외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62 • 성매매에 관해 궁금하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 64 • 성매매에 관해 추천할만한 영화는 어떤 것인가요?

- 68 참고문헌
- 69 후기

NO! 라고 말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위해!

무엇이 '문제' 라고 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해법도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말을 거는가' 입니다. 본 자료집은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일상에 탄지를 걸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성매매를 문제화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성구매는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친구들끼리 대화하기 위해, 그냥 경험삼아, 집단에서 외톨이가 되기 싫은 남성들의 문화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구매를 하는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릴 때 하던 행동이라며 성구매를 그만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구매가 불법임에도 NO라고 거절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듯합니다.

성매매 금지를 강조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성구매를 처벌수위만을 높인다고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구매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매자들의 솔직한 생각부터 들어 보았습니다. 성매매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규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과 계급차이, 성상품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성구매자들의 '남성성' 과 '일상' 을 관련시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자료집은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에 성구매가 자연스럽게 관계되는 점점들을 스스로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작은 변화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록에서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에 대한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성구매가 불법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매매에 관련된 한국사회의 담론들을 보여주면서 ‘성매매, 서로 다른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문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성매매가 말해지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녀들과 성구매자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또 기사검색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끊임없는 말! 말! 말!에서 성매매가 금지되는 맥락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봅니다.

본론에서는 ‘성구매자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성구매에 대한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어느 날’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성구매 경험이 그들의 삶과 일상에 아주 가깝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그들의 성매매에 관한 질문들을 다시 질문하고 대담함으로써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한국사회의 권력 관계를 가시화합니다. 대학생들의 성구매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가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하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들의 여성에 대한 통념이나 성별화된 관계 양식들을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위해 진짜 사나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welcome to your ‘real man’ world!)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되기’의 연습을 통해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연습들은 남성들의 새로운 관계, 욕망, 연대 만들기를 제안할 것입니다. 성구매보다 더 재미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이지요.

부록에서는 한국에서의 ‘성매매방지법’의 적용, 외국의 성매매 접근방식, 성매매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 영화 등을 소개하면서 성매매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한 최근 정보를 드립니다. 이 정보는 한국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
성매매,
서로 다른 현장들!
■

사건과 사고, 성매매를 둘러싼 끊임없는

말!

말!

말!

붉고 낮은 조명, 입은 듯 벗은 듯 야한 옷,
질은 화장과 강한 향기,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더듬는 남자, 웃음 소리....
'성매매' 하면 머리를 스치는 장면들 아닌가요?
우리 일상에서 늘 화제가 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비밀일 뿐 언제나 그곳에는 성매매가 있었습니다.
영화면 영화, 소설이면 소설, 예술 작품에서도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성매매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어떤 때는 정치와,
어떤 때는 경제와 맞물려 이야기 되고,
어떤 때는 인권의 문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접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사회면의 가로 세로 3센티미터 단락기사에서,
사회면을 전부 도배하게 된 특집기획기사가 되기까지,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많은 희생을 대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춘녀, 윤락녀, 여종업원... 그녀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많았지만,
한결같이 그 말 속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깔려 있었죠.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의 윤락, 매춘녀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에서의 성매매,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불리기까지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얼마나 성숙해 졌나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시선은 얼마나 변화했나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
 성매매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변했는지, 여전히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들끓는 해외 성매매, 단속을 피해 번지는 주택가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 상황은 나아졌나요?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까지

주요사건일지

1961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1995	8월 21일	용인여기술학원 방화, 원생 37명 사망
1996	1월 6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전문 개정, 쌍벌처벌강화
2000	1월 5일	김강자 경찰서장의 매매춘과의 전쟁 선포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5명 사망
2001	2월 14일	부산 완월동 화재 사건 4명 사망
	7월 14일	미, 한국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공표
2002	1월 29일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14명 사망
	7월 26일	여야 의원 '성매매방지법' 발의
	7월 4일	군산업소화재사건에 국가 배상 결정 판결
2003	2월 6일	한국 성매매산업 규모 24조원이라는 조사결과 기사화
2004	5월 18일	국가배상판결 번복
	3월 22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5월 20일	성매매피해여성들 집단으로 포주대상 손해배상소송청구
	9월 15일	대법원 선불금 무효판결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여기서는 현장 속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통념들이
실제 성매매 현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통념을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들은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막달레나공동체옹감한여성연구소/2007)와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김선화,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2006)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현장
목소리

돈 벌려다 빚만 지게 됐지

그러다가 OO에서 회사 다닐 때 알던 언니 소개로 미용실에도 있다가 나중에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2차가 무서워서, 그런데 돈 욕심에, 나는 술만 마시고 하루 10만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다른 사람들은 2차 가면 막 30만원 정도 버니까, 잠깐 사이에.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만 무서웠지. 하나씩, 그냥 그러다가 노래방, 룸에도 있고 그러다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집결지에서 감금생활을 하게 됐어요.

빚도 있고 이자가, 선불금을 받으니까 이자가 100만원이면 5만원이 이자고 2천만원이면 100만원이잖아요. 한달에 필수로 500~600만원을 벌어도 어디로 가는지 쪼들리고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테이블에서 실수하거나 2차에서 실수하면 주대변상이라고 술값이 300만원 나오면 2차 선불금까지 해서 200~300만원을 내가 갚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주가 나한테 조금만 안아주라고 해서 내가 결국 빌려준 거지만 300만원 또 빚을 지게 되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거기에다 사람들 남자들 노리개가 돼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가 없죠.

_ 박은영 (26세)

고급 손님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써 줘야 한다는 거지.

명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냐. 솔직히 백화점 같은데 가서 굶을 수도 있는 것도 강남 룸 다니는 애들이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개네들도 그게 팔리니깐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급 손님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써 줘야 한다는 거지. 언니들이 엄청 다이어트 하고, 정말 약 먹고, 요가하고 별 거 다 한 단 말이에요. _ 나리 (27세)

손님 비위 맞춘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일을 보통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일을 재밌게 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언니들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이 일이란게, 그냥 술 마시고, 2차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비위 잘 맞추는 언니들이 돈도 잘 벌거든요. 손님도 끌고. 근데 손님 비위 맞춘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드러운 것도 참고. 무시 많이 하잖아요, 아가씨들... 그거 다 ~ 유도리있게, 재량껏 잘 하는 언니가 돈도 벌어요. 그게 일이에요. _ 혜진 (31세)

거의 다 연기라고 봐야지. 그런 걸 또 원하잖아.

결국은 그런 거 같애. 사정을 해야 남자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연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거의 다 연기라고 봐야지. 그런 걸 또 원하잖아. _ 지우

지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내가 알게 뭐냐고! 그럼 오질 말던가.

나는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뭐 모르니깐 그런다고 할 수도 있을 거 같애. 그런데 남자들이 그러는 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 뭐 할일이 없어서 이런데서 일을 하냐고, 혼계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 놈들 많아. <지들은 여기 왜 왔는데?>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다니까. 암튼 그런 놈들 많아~.심한 경우는 “내가 씨발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데 너 같은 년들을 상대하고 있냐” 막말 많이 해. 근데 진짜 이럴 때 기가막히지. 지가 밖에서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내가 알게 뭐냐고! 그럼 오질 말던가.

_ 나리 (27세)

나 같은 애들은 드럽다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는 거야

남자들이 룸에서 아가씨들 너무 깔본다고. 나 같은 애들은 드럽다고. “니네들은 우리 마누라하고 비교가 안된다”는 거야. 지네 마누라들은 너무 고결하고 깨끗한 여자들이라는 거지. 진짜 그러면 나는 막 그랬어. 따지고,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 진짜 순진하고 착하다고. 마음은 진짜 여리다고..... 그런데 그런거 모른다고. _ 세연 (27세)

강간당해도 다방 기집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 친다고 생각해.

“내가 다방에 다닐 때 강간을 당했어. 다방업주가 ‘내가 이런 장사해도 어린애들이 당하는 거, 그 꼴은 못 본다’면서 신고를 하라고 했지. 나도 처음에는 내가 강간신고를 하는 게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신고를 했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다방 기집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사기 친다고 생각해. 내가 진단서 끊고 그 새끼가 내 목을 졸랐다는 것이 인정되니까 그때서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더라. 맘 같아서 는 그 새끼 처넣고 싶었어.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냥 합의한 거지” _ 서기은 (25세)

남자들은 노는 걸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지

나는 노는 게 아니지. 한 번은 단골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부르더라. 나는 미수금이 있던단 말이야. 그걸 받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간 거야. 웬~걸! 안 놔주는 거. 밤새 술 마시고 그러고 있었어. 지들은 옆에 여자 얹혀 놓고 그러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거지. 그런데 나는 뭐냐고. <돈은?> 못 받았지. 담에 주겠다고는 겨. ‘알았다’고. 그리고 속상해서 온 거지. 그러더니 다음날 오래. 2차비까지 챙겨 주겠다. 다음 날도 갔어. “야! 온 김에 노래나 불러라”, “오늘 시간비 챙겨 줄거냐고?”, “야 걱정마. 너 오빠 못 믿어?” 지랄~ 내가 저를 어떻게 믿겠냐고. 이틀을 헛걸음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을 데려다 얹혀 놓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게 노는 걸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즐린 거 참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 _ 재민 (25세)

인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지.

한번은 시민단체인가 뭐시똥인가에서 왔더라. 처음부터 아가씨들에게 ‘왜 이런데서 일하냐’고 하는 거야. 뚜껑이 열리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나? 그리고 빛이 얼마나,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화나는 건 인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지. 그 표정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돈 벌고 헤프게 쓰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좋아하지. 하지만 당시에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날 위해서 하는 거야. _ 서기은 (25세)

방문을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답을 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단지 빛이 있어서 못 나오는 줄 알지. 사실적으로 빛 때문에 못 나오는 것 아니겠지……. 대답하기 힘들었어. 방문을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보통 ‘문을 잠가 놓고 감금을 시켰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여기가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 감옥에 가둬 놔서 감옥이 아니라 사회와 단절돼서 살았기 때문이야. 열이 나가면 아홉이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는 또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야.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인 게 더 많아. 정말 말 들어보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지켜워하고, 다 나가고 싶어 해. 하지만 나가서 있는 사람이 차라리 거기 감옥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게 그 말이야. 적응이 안되니까. 거기가 내가 갈 곳이다, 생각하고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가장 서글픈 현실이야.” _ 박숙희

■
성구매자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
■

ATM*기를 찾는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어느 날



* 현금입출금기

성매매는 일석이조?



그 날의 처절한 첫 경험





그림 _ 최진규(97153538@naver.com/jnine.wo.to)

* 위 만화는 심층면접을 토대로 성구매자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라면?



성매매를 하는 게 정말 성욕 때문인가? 솔직히 끝나고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안쫓거리로 얘기하면서 술마시는게 더 재미있어서 그러는 거 아냐? 아! 성매매 안하면 뭐하면서 재미있게 놀까?



내 남친에게 너무 화가나. 나랑 문제가 있으면 나랑 풀어야지. 누가 순결 때문에 그럴대? 난 혼자 끄꿍 고민했는데. 이 자식아, 근데 너는 성매매 하러 가냐? 고민 해결 하는 방법이 많아서 참 좋겠어아~? 엉??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싫어도 좋은 척 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로 즐겁고 섹시한 성관계를 하는 다른 방식의 성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성매매에 관한 Q & A

여기서는 대학생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해 보는 Q&A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성매매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번 Q&A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편견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합니다.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팀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대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과 기존의 성매매 예방을 위해 제시되었던 답변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기획팀이 성매매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정작 대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 아예 '질문'조차 안 되거나, 반대로 기획팀이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것들이 대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궁금해 하는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질문들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더 고착시킨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생들이 성매매에 대해 궁금해 하는 “뻘한” 질문 목록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난 후 그 질문을 둘러싸고 있는 통념과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거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 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성매매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의 일부만 골라서 답변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통념에 대해 되묻고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성매매에 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뻘한' 질문들

빌딩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 명품 백 사려고 성매매하는 거 아닌가?

● 성을 팔고 사는 게 왜 나쁘지?

● 남자 여자 다 성매매하면 되잖아?

● 지가 좋아서 성매매하는 거 아닌가?

● 여자라 몸이라도 팔 수 있어서 더 유리하잖아?

● 성매매하면서 돈 잘내고 시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 섹스 밝히는 까진 여자들이 성매매 하는 거 아니야?

초기자본이라는 말도 몰라? 그 정도는 입어줘야 고급손님이 꼬이거든

그 유리한 일 네 여동생이 하면 좋아?

● 여자친구 없으면 성매매해도 괜찮잖아?

● 운동선수도 몸 파는 직업이니까 금지해야겠네?

● 남자들의 성욕을 위한 필요악 아닌가?

성욕생기면 자위하면 되잖아

● 장애인 남성한테는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잖아?

● 그럼 조건만남도 성매매야?

● 여자들도 호스트바 가잖아?

네 주변에서 성구매하려 가는 여자 봤어?

● 성매매 여성도 강간당할 수 있나?

맞사지 받는 거 좋아한다고 맞사지사 되냐

대학생들이 성매매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는 이미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들이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 쪽부터는 이 중 일부를 뽑아서 이 질문들이 보여주는 통념들을 짚어 보려 합니다.

1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

어떤 성매매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감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이런 식의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선택들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벌, 기술, 자격증, 자본 등 다른 자원을 갖지 못한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식당에 가서 하루에 10시간 씩 일하면서 100만원 겨우 넘는 임금을 받느냐 아니면 성매매를 해서 몇 백만원을 벌 수 있느냐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재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과연 ‘자발적인 선택’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조건에 있다면, 그 여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자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 ‘자기가 원해서’ 혹은 ‘강요에 의해서’라는 식으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들의 성매매 동기를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기보다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2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많이 번다?

성매매에 지불되는 금전적 대가는 다른 사회적 노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 중에 빌딩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하는 식으로 크게 돈을 번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성매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수천만원의 빚만 지고 나왔다거나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빈손으로 몸만 빠져 나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매매 여성들은 생각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걸까요?

여성들이 처음 일자리를 구하게 될 때, 화장실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거나 직업소개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개업자들이 많게는 몇천만원씩 소개비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알선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은 처음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몇천만원씩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선불금 문제는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지금도 관행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매매라는 일의 특성상 남성들로 하여금 성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은 화장품이나 의상비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식대며 방세도 따로 내야 되고, 지각을 하거나 혹은 하루 일을 쉬거나 하면 시간당 수당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매상도 못 올리고 빚이 늘어나면 다른 지역으로 소개받아서 가는데, 이 경우는 또 몇천만원의 소개비가 붙으니까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성매매 여성 중에는 돈을 모아서 가족들한테 돈을 부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여성들도 있으니,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큰 빚을 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성산업의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돈을 벌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 성매매 여성들은 남들보다 성욕이 강하다?

속담 중에 “첩 정은 삼 년 본처 정은 백 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첩에 혹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그 본처는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속담은 이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면서 성녀 즉 아내와 어머니는 희생과 정숙함을, 창녀 혹은 첩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구매 남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환상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환상만큼이나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남들보다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우리를 맞이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원래 다 친절할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무슨 웃을 입듯이 “어머, 손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옷가게 점원들은 원래 그렇게 쉽게 감동 받는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요?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로 성매매를 즐기고 있다기보다, 이는 성구매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설령 로맨틱한 데이트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돈벌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통념은 오히려 이 사회가 성매매여성에게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매매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성구매 남성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 수 있을테니까요.

4 여성들도 성구매를 한다?

물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성산업 종사자의 99% 이상은 여성 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요의 문제입니다. 누가 성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누가 성을 구입할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을 사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남성이고, 성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은 여성입니다.

남성문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문화가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노동조건들과 결합해 현재와 같은 성매매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을 파는 것, 특히 여성이 성을 파는 것을 경멸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남성과 달리 쉽게 팔 수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는 여성이 가진 다른 자원들이 남성에 비해 인정받기 어렵거나 여성에게 있어서 '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즉, 여성이 성 이외에 다른 것을 팔려고 할 때, 시장은 그것을 성판매만큼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낙인이 가장 큰 성매매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어버리는, 남성과는 다른, '불리한 지위'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여성들은 호스트바에 출입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성문화 안에서 남녀가 똑같이 성을 팔고 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남녀 똑같이 성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매매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성'을 파는 행위에는 다른 여타의 신체부분을 대여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낙인'과 '오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양성이 자유롭게 성을 팔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을 파는 일은 더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놓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을 둘러싼 사회적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한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5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남성들의 성욕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매매가 남성들의 성욕만의 문제일까요?

남성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보면 군대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도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구매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왜 공개적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성구매를 할 때에도 여럿이 꼭 같이 어울려 가고, 혼자서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술자리를 가져서 이 여자는 어떻게, 저 여자는 이렇더라, 미X리는 화끈하던데, 북X동은 어머니, 하는 품평회를 가집니다. 만약 정말로 성구매가 남성의 개인적인 성욕 해소를 위한 것 만이라면 굳이 같이 모여서 성구매를 하러 가고, 이후에 술자리를 가지면서까지 같은 이야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부록에 실린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이유를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욕 해결을 위해서”라는 답변보다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성구매를 했다는 답변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기심 때문에”, “동료들의 압력 때문에”, “접대 관행상 어쩔 수 없이” 성구매를 했다는 답변들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는 성욕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남성들의 집단적인 놀이문화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적인 놀이문화가 변화한다면 남성들에 의한 성구매의 비율 또한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6 성구매를 나만 안 할 수는 없다?

많은 남성들은 군대나 혹은 직장 회식자리, 아니면 선후배 모임등과 같은 집단문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성구매를 하러 갈때는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가는 분위기니까 나 혼자 빠지기 힘든 분위기가 됩니다. 게다가 같이 성구매를 하러 가지 않으면, “혼자 깨끗한 척 한다”거나, “분위기를 망친다” 혹은 “남성으로서 어딘가 좀 모자라다” 등 남자답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성구매하러 가는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혹은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는 오붓한 술자리가 있을 때에도 부르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도 성구매를 억지로 권하는 사람은 없지만, 같이 가지 않으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남자선배들은 남자후배들을 데리고 성을 사러가고, 이렇게 함께 성을 산 경험, 그리고 공유되는 이야기는 이들 남자 선후배 간에 끈끈한 우애(!)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에 혹시 성을 사러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성이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쉽게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구매하는 것이 싫더라도 선후배들과 친해지지 위해서, 남성들의 세계에 인정받기 위해서 성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구매를 통해서 우애를 확인하고, 이를 권하는 것이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나쁜 관습이라면 이러한 관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주위사람들이나 남들의 핑계를 대면서 악습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성구매를 하는 풍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이다?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팔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혼인 이외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또는 도덕적 이유로 성매매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옳고 그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몸을 이용해서, 소위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특별히 성매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몸을 파느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의 방식은 단지 ‘다름’이 아니라 ‘위계’로,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지성 선수처럼 몸을 이용해서 땀 흘리면서 공을 차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은 존경받는 일이지만, 성매매 여성이 몸을 이용해서 땀 흘리면서 섹스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 ‘천하고 부끄러운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성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지위의 직종들 중에서도 성매매는 특히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일 중의 하나로 ‘가사도우미’ 즉, 가정부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어머니가 돈을 버셔야 한다면, ‘가사도우미’나 ‘노래방도우미’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성매매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념들이 변화한 미래에서는 성매매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는 성매매가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 숨을 돌리세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과 복잡한 답변들 7개를 읽으며 숨차게 달려오신 여러분, 잠깐 숨을 돌려 보지요. 성매매에 대한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난데없이, 웬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 . @ ?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는 여성학 이론을 비롯한 여러 연구 분야에서 개념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세 가지 모두 뚜렷히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 느낌(!)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섹스(sex)는 소위 '타고나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남자(male), 여자(female)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젠더(gender)는 태어난 이후에 길러지는 사회 문화적 특성, 즉 남성성(masculinity), 여성성(femininity)으로 설명됩니다. 젠더는 '남자는 용맹스럽다', '여자는 다소곳하다'는 남/녀의 성향에서부터 '남자는 차마를 입지 않는다'는 외모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역할도 젠더에 의한 남/녀의 구별이 아직까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의 욕망과 선택도 젠더가 영향을 미치는 이 사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을까요? '누구랑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성적 욕망과 실천을 말하는 섹슈얼리티도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젠더의 영향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자 혹은 남자 두 가지 경우로 말끔이 구분되어 버리는 걸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규범, 기대, 가치체계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지 느낍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여자로, 화목토는 남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상상하지도 않지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지요?

설명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적응과 저항 속에서 모두가 갈등하고 있는 거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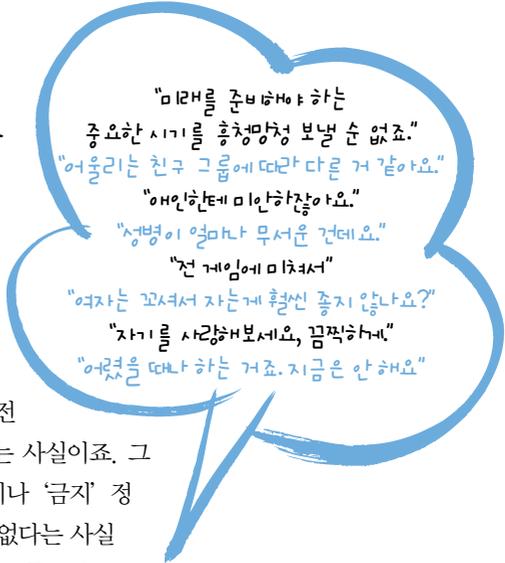
물론 그럼에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다같이 파이팅~

성구매를 안하는 그들만의 이유들

한국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여전히 성업 중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실은, 더 이상 '차별'이나 '금지' 정책만으로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왜 성구매가 남성들의 삶에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구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남성문화에 말을 걸어 보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결국 '이거다' 싶은 힌트는 얻지 못했습니다. 성구매를 하지 않는 남성 대학생들조차도 여성을 '정숙하고 깨끗한 여자'와 '문란하고 더러운 여자'로 구분하며 대상화시키는 기존의 남성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남학생들이 성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성구매를 하는 이유만큼이나 기존의 가장장적 관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층면접에서 나온 남자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가명으로 편집, 재구성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들의 일상에서 '성',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질문해볼까요?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흥청망청 보낼 순 없죠.”

전상진 (23세)

이 경쟁시대에 미리미리 자기계발도 해야 하고, 적금도 부어야지, 성매매업소 갈 틈이 있나요? 그럴 시간 있으면 토익시험 준비하기 위해 영어단어 한 자라도 더 봐야죠. 요즘은 시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흥청망청 보낼 순 없죠.

* “어울리는 친구 그룹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배승훈 (24세)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친구들 중에 같이 그런 데 가자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남자들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친구 그룹의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 같아요.

* “애인한테 미안하잖아요.”

오주영 (22세)

전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안가요. 가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여자친구 핑계를 대면 이해해주는 분위기이구요.

* “성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차효선 (21세)

전 솔직히 잘 모르는 여자들하고 잠자리하는 것이 좀 꺼려져요. 신종 성병도 너무 많구요, 아무리 집결지 같은데 있는 여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콘돔을 꺼도 성병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전 게임에 미쳐서”...

장우현 (20세)

저는 게임매니아라 사실 그런 성구매 같은 거엔 크게 관심이 안가요. 애들하고 pc 방 몰려 들어가면 하룻밤 새는 건 금방인데 그런데 갈 틈이 없죠. 그리고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여자애들이랑 대화도 하고 가끔 맘 맞으면 번개도 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 “여자는 교서서 자는게 훨씬 좋지 않나요?”

임재창 (25세)

저는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것은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애교 떠는 것 같고, 돈 때문에 섹스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싫다고 해야 할까요? 전 그래서 클럽이나 나이트에 가서 원나잇을 해요. 솔직히 돈주고 여자사는 건 능력없고 매력없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죠.

* “자기를 사랑해보세요, 꼼직하게”

유지호 (24세)

글쎄요, 저는 이제까지 저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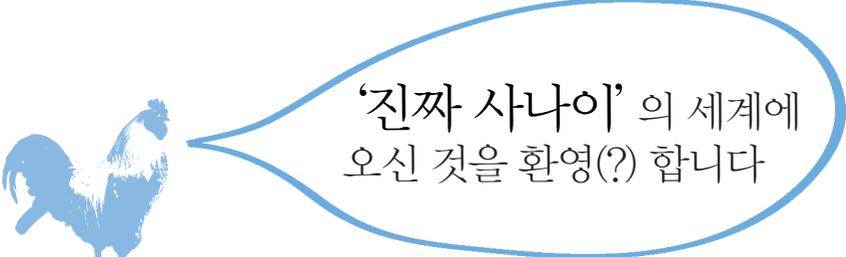
여자 만나고, 여자에 돈쓰는 거... 너무 가소로운 일 같아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도 빠듯한데... 누군가는 제가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굳이 타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깐요.

* “어렸을 때나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해요.”

김승진 (27세)

사실 성구매는 어렸을 때나 하는 거죠. 요즘은 몇 번 하다보니 별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은 안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런 건 철없는 애기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



‘진짜 사나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예방자료집 Just Say No!]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성구매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읽으면서 성매매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너무나 특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대학생살을 채우고 있는 술자리와 조발표와 레포트, 그리고 시험과 퀴즈의 홍수 속에서, 성매매는 틈틈이 우리의 일상에 끼어드는 경험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된 처벌로 우리의 일상을 촘촘히 규제하고 바꿔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남성 문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생깁니다.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나이들’의 관계맺기 방식은 어떤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군대가는 친구를 위로하는 술자리, 취직한 선배와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것이 성구매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남성 문화 속에서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들여다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남성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나이’의 규격이 뭔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규격에 들어맞는지 가늠해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다양한 특징들에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자아, 여러분!!

‘진짜 사나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형적인 남성성/여성성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서, 자신을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지요. 남성성/여성성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대조적인 의미로 만들어지니까요. 남성성/여성성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 이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도 이 코너가 흥미로운 질문들로 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섹션 1의 exercise.2를 “너의 가슴은 대충 사이즈가 어떻게 돼” “A컵? B컵? C컵? D컵!” 뭐 이런 식으로 말이예요.

혹은 남자 친구가 있다면, 함께 남자 친구의 남성성에 대해서 대답해봐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남성성과 여자 친구가 바라보는 남자 친구의 남성성은 어쩌면 서로 다른 대답을 이끌어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답의 차이들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죠? 사실 꼼꼼히 질문들을 읽다보면, 피식 웃음이 터져나올지도 몰라요. 보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재밌을지도 모르니까요!

Section 1

너는 '진짜 사나이' 야?

Intro

너는 너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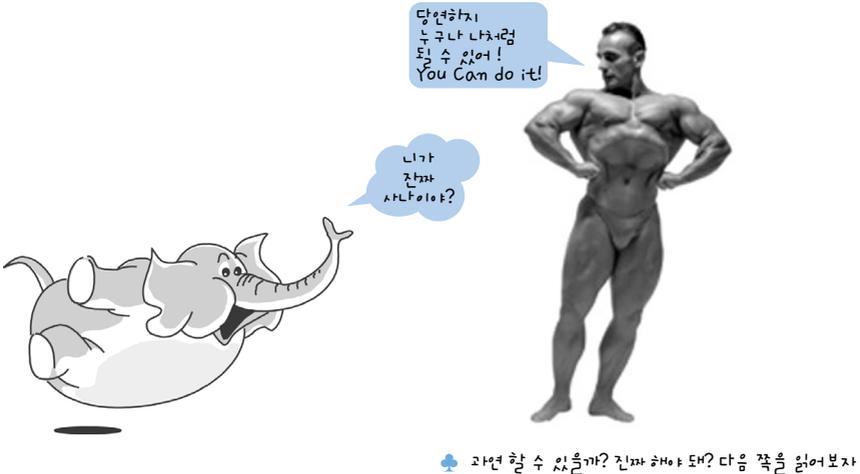
어떤 몸이 남자의 몸일까? 어떤 몸이 남자다운 몸일까? 그러면 대체 '진짜 사나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다음 페이지의 질문들을 읽어보면, 질문이 매우 간단한걸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답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다음 질문들에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걸. 주어진 보기로 너를 설명할 수 없다면 다른 보기를 스스로 만들어 답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야. 예를 들어, exercise.3 다른 애의 물건을 보면서 '참 잘 생겼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보기 D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런 걸 왜 묻냐"라는 식으로.)

사실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너가 정말로 '진짜 사나이' 야? 라고 묻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건 어느 누구도 '진짜 사나이' 일 수 없다는 거지.



exercise 1 너는 태어날 때부터 물건을 달고 있었어? 아직도 달고 있니?

- a. 그럼 두 쪽도 같이 가지고 있지. 그게 질문이야?
- b. 응. 근데 나는 자지도 있고 보지도 있는데.
- c. 아니. 아마도 내 키가 자라면서 물건도 자란 거 같은데?
- d.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줘도 좋아!)

exercise 2 너의 물건은,

- a. 10cm 만해?
- b. 15cm 넘어?
- c. 혹시 10cm 보다 작니?
- d.

exercise 3 다른 애의 물건을 보면서, '참 잘 생겼네' 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

- a. 응
- b. 종종 그렇게 생각했어.
- c. 아니
- d.

exercise 4 너의 키는,

- a. 남자 키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 b. 작은 고추가 매운 법. 작지만 괜찮아.
- c. 나는 키가 아직도 자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반드시!!!
- d.

exercise 5 다른 사람들이 너를 표현하기를,

- a. 새끈하다고 말하니? 몸이 얼마나 좋은데? 근육 많아?
- b. 네 나이에 맞는 몸이라고 말해?
- c. 똥똥해 혹은 너무 말랐어 등등. 어쨌든 엉망이라고 말하니?
- d.

exercise 6 너의 몸이나 몸짓이 남자답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것 같아?

- a. 아니
- b. 글썄, 가끔 몇몇 예리한 사람들이 있지. 근데 첫눈에 알아보는 건 아닐걸?
- c. 응.
-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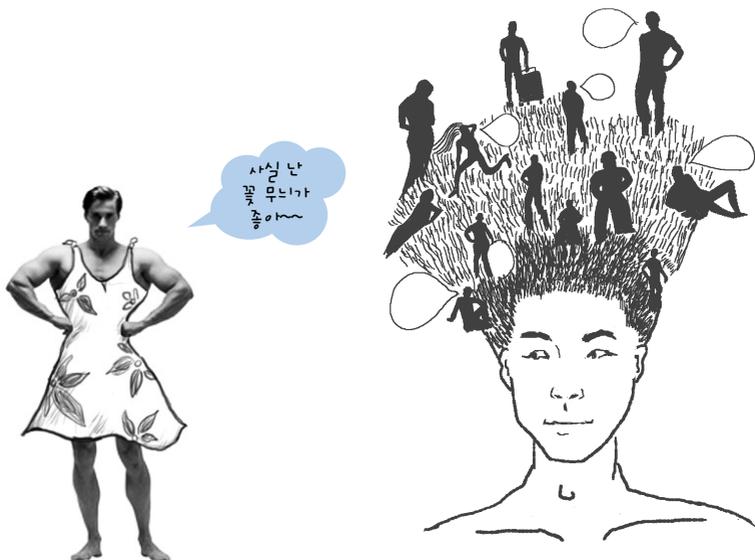
Section 2

내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나'

Intro

앞 장에서는 생각만큼 너의 몸이 '진짜 남자' '진짜 사나이' 라는 말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거야. 그럼 벌렁거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자. 이번엔 너도 모르고 있던 네 안의 다양한 너의 모습들을 꺼내 줄게.

남자와 여자,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사이에서 너는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너는 어떨 때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고, 질문에 답하면서 네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너의 모습에 놀라게 될 꺼야. 하여튼 이제부터 확인해보자고, 이번에도 섹션 1처럼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봐.



exercise 1 다음 중 너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골라봐.

- a. 나는 진짜 사나이
- b. 나는 진짜 여자
- c. 나는 진짜 사나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 d. 보기엔 없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지.
- e.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줘도 좋아.

exercise 2 너는 여자가 입는 옷을 입어 본 적이 있니?

- a. 이봐,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 b. 응. 하지만 내 옷(남자가 입는 옷)을 입을 때가 더 편해. 진짜 내가 되지.
- c. 여자가 입는 옷이란 게 따로 있나?
- d. 때때로 즐겨 입어.
- e.

exercise 3 백화점에 가서 꼭 남성복 코너에서 쇼핑하니?

- a. 예? 그런 구분이 있어?
- b. 아니. 여성복 코너에 가면 의외로 맘에 드는 옷이 많이 있어.
- c. 응.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 d. 난 어디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가.
- e.

exercise 4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 a. 아니. 없어. 글썄... 있다면 아마 나는 아이를 갖거나 할 순 없겠지. 근데 누가 그걸 원하겠어?ㅋ
- b. 흠... 물론 있지.
- c. 가끔 그럴 때 있지. 그때마다 내 성별 때문이라고 생각하긴 해.
- d. 아주 오래 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있지. 엄마 손 잡고 여탕 가기?ㅋ
- e.

exercise 5 종종 동성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내가 그 성에 걸맞지 않게 놓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여자라면 치마를 입고 다리를 짹 벌리고 앉아 지하철서 화장을 고친 다거나, 남자라면 친구와 한 100분 짜 전화기를 붙들고 수다를 떨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했다거나?)

- a. 아니
- b. 난 안 그래. 그런데 그렇게 사내답지 못한 애가 매우 걱정돼.
- c. 응.
- d. 응.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나?
- e.

exercise 6 네 자신이 지금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 본 적 있지? 그래서 그 걸 제거해 볼 (수술할) 생각도 해봤어?

- a. 아니. 전-혀.
- b. 응. 괴롭긴 한데, 그렇다고 없애고 싶진 않아.
- c. 그런 건 사회적 의무는 아니잖아.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 d. 응. 항상.
- e.

exercise 7 너의 자유로운 표현과 모습을 사회가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a. 나는 그런 규제들을 꽤나 열심히 지키는 편이야. 왜냐면 그래야 나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그걸로부터 얻어낼 게 있는 한, 나는 준수하는 편이야.
- b. 나는 개인들의 행동과 정체성을 규제하는 사회적, 문화적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c. 나는 내가 따를 규칙들과 무시할 규칙들을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야.
- d. 규칙? 웃기는 소리. 그런 규칙들이 벌써 수차례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갔는 걸. 다 쓸데없는 짓이야.
- e.

exercise 8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니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이상한 존재로 변했어. 너의 반응은?

- a. 죽어버릴래. 아니면... 거기서 한 발 자국도 나오지 않겠어.
- b. 이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심각하게 토론 해 보겠어.
- c.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보겠어. 하리수라도 좋아.
- d.하품 한 번 하고 웃 입을래.
- e.

exercise 9 만약에 성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처음에 봤을 땐 여자 같은데, 나중엔 남자 같기도 하고 한 사람) 어떨 것 같아?

- a. 어디서 또 애들이 술 먹고 여장남자쇼 하나?
- b. 무식하면 용감하지. 심중팔구 변태야.
- c. 와우!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본적 없는데?
- d. 홍석천이나 하리수하고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자.
- e.

exercise 10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남/여 둘로 나누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나?

- a. 당연한 거 아니냐?
- b. 아마 자연에 자연을 거듭한 결과 아닐까?
- c. 아마도,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지 항상.
- d. 말이 안되지. 실제로는 사람 수 만큼 다양하지 않겠어?
- e.

exercise 11 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을 바꾸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봐?

- a. 아니.
- b. 시도는 할 수 있겠지..아니다. 안 되는 거라고 봐.
- c. 응. 적당한 관리, 수술, 호르몬을 이용한다면.
- d. 몇 번이든 !!
- e.

exercise 12 남성/여성, 남성성/여성성 같은 구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더 다양한 사람들(남/여고 뭐고 상관없이)과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이 생길까?

- a.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런 구분이 없던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
- b. 좋은 질문인데? 친구들한테 한 번 물어 볼게.
- c. 머리로는 별론데, 왠지 맘은 좀 땡기네?
- d. 맞소사.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그거야!
- e.

Section 3

사랑, 연애, 그리고 성관계를 둘러싼 상상들. 그 안에서 너의 욕망을 찾아봐!

Intro

앞서 너는 네 안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가려져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야. 네 안의 다양한 너를 발견했다는 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너의 삶에서 바뀌는 건 뭐고 바뀌지 않는 건 뭘까?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사랑, 연애, 그리고 성관계를 생각해봐자고! 아래의 질문들은 사랑, 연애, 성관계에 대한 너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질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 연애, 성관계, 그리고 욕망에 대한 질문의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결정타가 뭘지 궁금해하면서! 자~ 시작해보자고.

맞보기용 질문

대낮에 네가 길 한가운데 있는데 네 애인이 와서 네게 격렬하고 찌한 키스를 했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어?

- 개가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키스해 주지.
- 누가 나를 봤거나, 혹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야.
- 구경한 애들한테 눈요기한 값을 받는 건 어때?
-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은근 기분 좋겠지.



exercise 1

1. 사랑, 연애, 그리고 성관계는 너의 삶에서 어떤 의미야?
2. 네 성적인 욕망과 표현을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니?
3. 네가 기대하는 사랑, 연애, 성 관계는 어떤 거야? 이에 대해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뭐니?

exercise 2

1. 너를 드러내는 역할과 관련하여 다섯 개를 적어봐. 예를 들어, 남성, 대학생, 고사생, 삼성 맨, 남편, 장남 등등 어느 것이나 좋아.
2. 각각의 역할 옆에, 우리 사회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에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적어봐.
3. 이제는 그 역할의 입장에서 실제로 네가 매력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을 적어보자고.

너를 드러내는 역할들	너랑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실제로 네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1. 장남	부모님 존경하는 착한 여자	원더걸스의 소희?
2. 남자	여자	남자(그러면 게이♥)
3.		
4.		
5.		

exercise 3

1.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봐. 그 관계로부터 네가 새롭게 얻은 것들을 기억해봐. 그 관계를 통해 얻은 새로운 관심사나 특별한 노하우는?
2. 새로운 관심사나 노하우들이 이후 너의 삶을 어떻게 바꿨니? 이것들이 너의 정체성을 변하게 만든 것이 있어?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너의 삶이나 변화한 정체성에 대해 이름을 붙여봐~

과거의 인간 관계	새로운 관심사나 노하우	삶의 변화 혹은 정체성의 변화
1. 자취하는 친구	살림의 노하우	방바닥의 머리카락을 혐오하는 증상 생김
2. 애인 소개시켜준 친구	여자	여자를 꼬시는 법에 도사가 되다!
3.		
4.		
5.		

exercise 4

1. 네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 중 다섯 가지를 적어봐.
2. 다섯 가지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말하는 '진짜 남자' 라는 정의에 딱 들어맞니? 딱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뭔데?

너의 노력 BEST 5	너의 노력은 '진짜 남자' 에게 어울리는 것들이니?
1. 소개팅 전날 마스크팩 하기	피부관리는 사실 남자가 하기에 민망하긴 해.
2. 돈 마련하기	돈이 많아야 남자지. 근데 돈이 별로 없어서---
3.	
4.	
5.	

exercise 5

1. 아래의 표 왼쪽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자. 예를 들어, 수려한 복근, 새끈한 차차 혹은 눈부신 애인 아니면 취업 합격통지서? 무엇이든 네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적어봐.
2. 그 오른쪽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너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네 정체성에 대해 적어줘. 예를 들어, 새 차를 원한다면, 넌 새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혹은 누군가가 너에게 새 차를 사줄만한 사람이 되거나. 만약 네가 눈부신 애인을 원한다면, 그러기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너는 무엇을 욕망하니?	그걸 얻기 위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
1. 환상적인 섹스 ?	애인의 취향을 알아내야 하겠지...
2.	
3.	
4.	
5.	

결정적인 질문

너는 지금까지 네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 연애, 성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잖아. 너에게 성관계는 무슨 의미인지 묻는 질문(exercise.1)에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혹시 너에게 성관계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성구매와 같다고 적었니? 너의 욕망을 위해 필요한 너의 노력을 묻는 질문(exercise.5)에 너는 혹시 너의 주체하지 못하는 '성욕(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성구매를 하려간다는 답을 적었어? 아니면 성구매를 할 돈을 벌기 위해 용돈을 비축해두는 노력을 하겠다고 적은 적 있어?

사실 결정적 질문이라고 해놓고 물어보는 것들이 어이가 없을 거야. ^^;;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 연애, 성관계 그리고 욕망과 성구매는 사실 가깝다면 매우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스스로 사랑, 연애, 성관계를 생각할 때 성구매를 떠올리지는 않을걸?

그럼 성구매를 하는(혹은 하고 싶은, 이것도 아니면 기회가 닿으면 할 수도 있는) 너의 욕망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흔히 성욕 때문에 성구매가 존재한다고들 생각하지.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물어보는 질문들에 답할 때, 우리는 성구매를 염두에 두고 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

문제는 사실, 성욕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뭔가 심심하게 느껴지는 늦은 새벽 술자리, 우루루 함께 놀러가는 느낌, 성구매의 경험이 무용담이 되는 대화... 뭐 그렇고 그런 우리들의 문화 자체가 성구매를 존재하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일 필요 없어, Just Say No!

당신의 남성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들에 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자료집에서 왜 남성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성매매는 남성들의 '통제하기 어려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해되어 왔지요. 그러나 대학 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성구매 관련 무용담이나 성구매 경험들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성욕' 때문인 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늦은 술자리에서 한 번 찐하게 놀아보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친구를 위로하는 이벤트로서 성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는 '남성들의 놀이 문화'를 질문하고 '남성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앞서 살펴본 질문 몇 개를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너의 몸이나 몸짓이 남자답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것 같아?

: 내 글씨체가 너무 여자 글씨 같다고들 해. 노트 필기할 때는 내 걸 빌려가면서 말이지. -_-^
(은혁 19세)

-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 카페에 남자 둘이 앉아 있으면 이상해보여. (현수 21세)

너의 노력 BEST 5	너의 노력은 '진짜 남자'에게 어울리는 것들이니?
1. 데이트 비용대기	남자라면, 데이트 비용을 내야겠지.
2. 헬스로 살 빼기	다이어트는 사실 '진짜 남자'한테는 안 어울려.

Just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남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답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규칙들은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혹은 무시하면서 '진짜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남자답게/여자답게의 규칙들을 어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좋게 이어지는 술자리가 성구매하러 우르르 몰려 가는 분위기로 이어질 때, 분위기를 깨면서 “NO!”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날 다 같이 다녀온 친구들의 유쾌한 무용담(?)을 듣고 있자면,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쉽지요. 군대가는 친구가 성구매를 위해 돈 좀 모아달라고 할 때, “NO!”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서운해 하는 걸 보느니, 돈을 모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선배가 대딸방을 데려가 준다고 하는데, 애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NO!”하기 어렵습니다. 선배가 민망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애인한테야 안 들키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성구매의 유혹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성구매를 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 대답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 JUST SAY NO! 하게 해줄 거예요.

Just Say No!

선택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술자리가 지루해지면 오늘은 일찍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군대 가는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맛있는 밥을 싣껏 사 먹일 수도 있는 거죠. 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들길 수도 있잖아요. ^-^;;

매일 하루에 십분씩만
'진짜 사나이'에서 멀어져서
솔직한 나와 만나는 걸
연습해보는 건 어때요?

(눈썹을 치켜 올리며)

☺,☺ 그게 연습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설마, 당신은

그래본 적이 있나요?

■
부록
■

2000년 9월,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대명동 화재 사건이 있는 지 정확히 4년 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정부 각 부처와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주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의 존재를 필요악으로 여기고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구매는 물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범죄임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 성욕을 이유로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비판하기 위해 20대의 성매매 동기를 제시하여, 성매매의 동기가 단순히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재미' 거리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한다.

다음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업종을 분류해 본다. 법은 집결지 철폐 뿐만 아니라 불법유흥업, 변종 성매매, 원조교제, 조건만남까지 구체적으로 단속·처벌할 수 있다. “이건 아닐 거야.” 하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다면 마음을 접을 것을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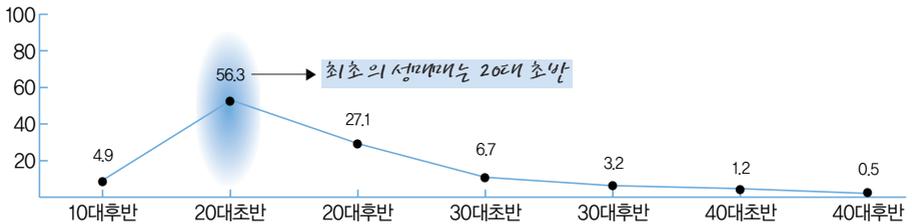
또한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를 통해 성매매를 보는 법의 입장 변화를 보고, 지금까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행위들이 심각한 “범죄”임을 확인한다. 이에 새로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저촉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태국, 미국의 사례를 짚막하게 소개한다. 각각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봤을 때 크게 세 개로 나뉘지는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로 나뉘 간단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의 정보를 통해 성매매가 범죄임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마음으로 성매매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뒤에 소개된 영화와 책은 성매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와 성매매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담은 영상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서 우리와 크게 다를 것도, 똑같은 것도 없는 그녀들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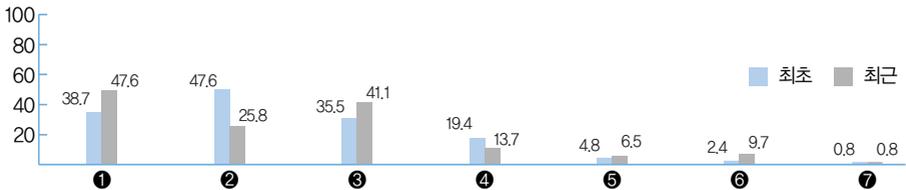
● 처음으로 성구매를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례수(명)	10대후반	20대초반	20대후반	30대초반	30대후반	40대초반	40대후반
연령대	20대	124명	7.3	75.8	16.1	-	-	-	-
	30대	149명	3.4	49.0	39.6	7.4	0.7	-	-
	40대	202명	5.4	52.5	22.8	9.4	7.4	2.0	0.5
	50대	93명	3.2	50.5	31.2	7.5	2.2	3.2	2.2
전체		568명	4.9	56.3	27.1	6.7	3.2	1.2	0.5



● 20대 남성들은 왜 성구매를 할까요?

총 사례수 (124)	최 초	최 근
① 술자리에 어울리다	38.7	47.6
② 호기심에	47.6	25.8
③ 성적 욕구 해소	35.5	41.1
④ 동료들의 압력	19.4	13.7
⑤ 접대 관행	4.8	6.5
⑥ 스트레스 해소	2.4	9.7
⑦ 군입대를 계기로	0.8	0.8



성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내부 자료), 2007년

● 성매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형	주요특성	업소형태	내용	
업소형	전업형 성매매	•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됨)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588, 영등포, 미아리 텍사스, 부산 안월동, 인천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 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	소규모 성매매 업소	군소규모의 유흥장소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들(흔히 '판자집' 또는 '벌집', '뽕뽕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겸업형 성매매	•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	식품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까페, 레스토랑, 인삼차집),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싸롱, 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 또는 업소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중위생 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 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내용은 형식적으로 합법적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맛사지 업소 등에서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최근엔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
		• 최근에는 업소에서 종사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로 변화	풍속영업 관련업소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 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접대부로 일시 공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일종의 직업소개처럼)의 영업전략도 등장함.				
비업소형	인적 매개형 성매매	•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소개시키는 방식 또는 남녀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	인력 공급업체 (보도방)	각종 유흥업소 및 노래방 또는 호텔·여관 등에 접대부(매춘여성)를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
		• 일종의 출장형 성매매	이벤트사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형태
	• 여기에는 인력공급자(소개자)가 주도적으로 여성을 지배·공급하는 성매매 영업자형과 단순히 소개료(알선료)만을 챙기는 소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예계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전자 알선형 성매매	• 회원간에 만남,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형태	전화방/ 080전화 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전화방/ 080전화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해 개하는 경우와 전문 성매매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서비스업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로 연결되도록 전자매체나 연결장소만을 제공하여 소개자 형태에 그치는 경우로 나뉨.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공간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하는 이루어지는 성매매(특히 원조고제)
직거래형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중사여성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서 1:1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 	박카스 아줌마/ 들병이	등산객, 운전수, 공원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
		거리 성매매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계약동거형성매매	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

●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항 목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목적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 자립 근거 마련	윤락여성 선도와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포주 등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 간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모든 윤락여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자 (성 구매자, 성 판매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 협박 등으로 성매매 시킨 자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감금과 낙태 강요 등	3년이상 유기징역	없음
폭력조직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5년이상 유기징역	없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년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건물주 포함)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없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없음
성매매관련 범죄수익	몰수 · 추징	없음
성매매 여성의 불법적인 빚	무효	채무 인정
보상금 제도	인신매매 신고시 최고 2000만원	없음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성매매’ 라는 용어 사용

성매매방지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사용했던 ‘윤락’이라는 말 대신 ‘성매매’라는 말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윤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윤리적으로 타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매매를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모두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존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성을 판매하는 여성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배제한 용어를 사용한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구매 남성의 처벌

성매매 여성이 인신매매나 불법적 채무 관계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 받은 경우 피해자로 보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탈성매매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의 협조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의료·법률 및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과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 반해, 성매매방지법 하에서는 성 구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다.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

성매매방지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감금, 낙태 강요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 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한 성매매의 공급을 차단하고, 실제 성매매여성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포주와 그 주변 착취구조를 개선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무엇이 변화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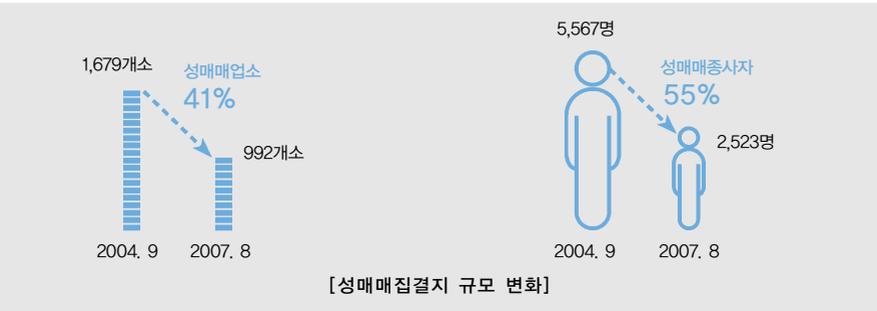
변화 1 인권존중 사회로 도약

-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사례 64.6% 감소
- 납치·감금·성매매강요·선불금 착취 사례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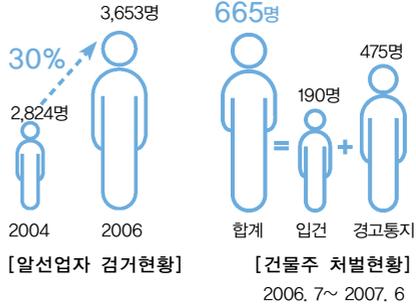
변화 2 성매매집결지 대폭 축소

- 성매매업소 41% 감소
- 성매매 종사자 55% 감소



변화 3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 약순환되는 성매매연결고리 차단
- 성매매 알선업자 1만 3천여명 검거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누적검거 현황)
- 재산·물수 추징과 건물주까지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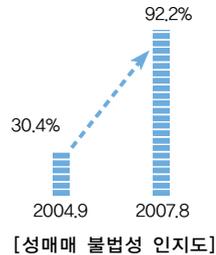
변화 4 탈성매매위한 자활 기반 마련

-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지원, 자활지원 2배 증가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실질적인 자활 지원



변화 5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 국민의식의 전환 '성매매는 불법' 92.2%
- 성매매로 유발되는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변화 6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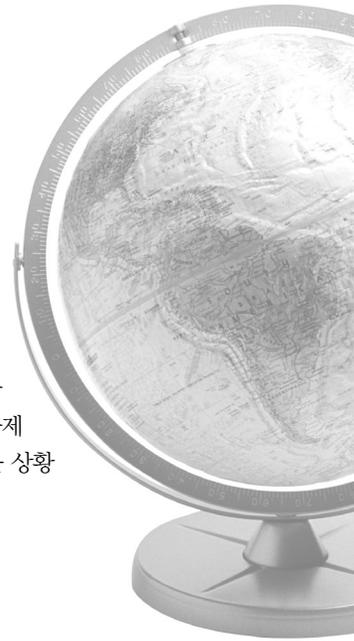
- 성매매방지 모범국, 코리아
- 국제인신매매보고서, 3년 연속 1등급 국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리포트, 여성가족부, 2007년〉

외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각국은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사회적 시선에 따라 모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떠안고 조금이라도 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상상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성매매는 합법적 ‘영업’

독일은 기본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2001년 12월 20일 성매매 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본 법안의 내용은 성매매 종사자의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적 수혜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행위 인식에 따른 노동 3권 인정 및 성판매자의 고용, 공급행위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단, 성매매 강요·미성년 성매매·인신매매·국제적 성매매 행위 등과 학교·미성년자 근처 등 특정 지역 및 특정 시간대에는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성매매를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형법조항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 여성들을 노동자로 보장하고, 내부적 착취를 엄격히 단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직업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대부분 등록을 꺼려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자국민에게만 해당하는 법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타국에서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웨덴 성구매 금지, 성구매자 처벌

스웨덴은 잘 알려진 복지국가로 정부 관련자는 “성판매 동기가 돈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단언할 정도이며, 여성의 취업률이 70%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성취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

다. 현재 스웨덴에서 '성매매'는 그다지 큰 숫자를 점하고 있지 않아서, 전국의 성판매 여성은 한국의 50~150만명에 비해 약 3~4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남성들의 성구매 비율은 13%로 한국의 약 48%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스웨덴에서는 6년간의 논의 끝에 1998년 여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입법의 과정에서 강력한 금지주의 법률인 '성적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성구매자나 성구매 미수자도 처벌된다. 반면 성판매 여성을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이 법이 성판매자는 지원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은, 돈으로 타인의 성을 이용하겠다는 성구매자의 '자발성'이 대부분 알콜중독이나 약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성판매 여성의 '자발성'과 동급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발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사회적 일탈자에 대한 적극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비불법화에서 금지주의의 재등장

프랑스는 1949년 공창을 폐지하고 1960년 '인신매매와 타인의 성매매 착취 반대를 위한 UN협정'을 비준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도로 성매매에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객행위, 포주행위(여성조달행위),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해 다른 법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1994년부터 포주행위(여성조달행위)에 대한 엄격히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조직적 동맹의 일부로 이뤄지는 포주행위는 징역 20년과 벌금형에 처해지며, 폭력과 고문을 통한 포주행위는 무조건 즉각 종신형에 처한다.

그러나 2003년 포주와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안전을 위한 법'이 발효되면서 '소극적 호객 행위'를 범죄로 보는 법이 부활된다. 호객 행위자인 여성에 대한 처벌을 가중 시켜 성매매를 단속 했고 결과적으로 가시적 성매매인 거리매춘만이 주 단속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속을 피해 여성들은 더 외진 곳으로 이동했고, 협박이나 감시 하에 있는 여성들의 협조도 끌어내지 못해 범죄조직을 소탕하겠다던 목적도 달성되지 못했다. 때문에 최근 구매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매춘 관련법을 개정하지는 제안이 주장되고 있다.

태국 유흥업소법 그리고 매매춘방지 및 억제법

1996년 유흥업소법이 제정되면서 특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법화되었다. 이 법은 성거래 업소들은 칠판이나 안마업의 외피를 쓰고 합법적으로 성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 대부분의 성거래업이 이 법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같은 해에 매매춘방지 및 억제법이 제정되어 "18세 이하 미성년 유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태국 법무부에서는 성거래 합법화를 고려,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법화와 규제화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국 성구매 재범 방지 교육 '존스쿨'

존스쿨(John School)이란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이다. '존'이라는 이름은 적발된 성구매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대지 않고 가장 흔한 '존'이라는 이름을 댄데서 딴 것. 성구매로 적발된 초범을 대상으로 강연, 역할극, 토론 등으로 이뤄진 8시간의 교육이 이뤄진다. 존스쿨의 주요 목적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성매매법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존스쿨 졸업자는 재범률이 2% 안팎으로, 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우리 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

금지주의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명시, 성을 매매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금지주의 정책은 성판매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지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금지주의를 지지하는 층은 다양하다.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세금, 특정 구역 지정허가제, 개별 등록제, 건강검진 등을 국가와 법이 보장할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이외의 것은 불법으로 처벌 된다.
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금지나 합법의 특정 입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성매매와 관련 된 감금, 착취, 인신매매, 미성년자 고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타 형법으로 강력 처벌하되,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성매매에 관해 궁금하다면 어떤 책이 좋을 까요?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막달레나공동체옹감한여성연구소 | 그린비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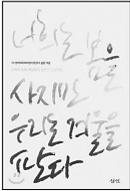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의 논의를 넘어 성매매공간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일 때만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정책의 아이러니를 포착하고 있다.



성노동 (SEX WORKER)

여성문화이론연구소성노동연구팀 | 여이연 | 2007

이 책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성노동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며, 성과 노동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또한 인권, 법, 국가, 산업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글쓰기 프로젝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 삼인 | 2006.

이 책은 부산의 대표적 집창촌인 이른바 '완월동'이나 티켓다방 등에서 한때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했던 여성들 10명이 쓴 수기와 인터뷰를 엮은 것이다.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방지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서울대여성연구소 | 이재인 역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6

이 책은 정책입안자와 성매매 종사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어떤 이해·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접근하며,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글과 말들을 담고 있다.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노동)

오구라 도시마루, 간노 사토미, 치모토 히데키 | 김경자 역 | 삼인 | 2006.

이 책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 나 '희생자'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생산·재생산되는 '사는 신체'에 주목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논점을 짚어 나간다.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 변혜정 역 | 동녘 | 2006.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의 지형을 통해 성적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왜 문제인지를 고민할 수 있다.



여/성이론 통권 제 12호, 제1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부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 | 2005.

12호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여성의 생존문제와 성매매의 노동성을 다룬다. 기획특집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여성의 생존 문제와 여성주의자들의 다른 목소리'의 6편의 글들은 근절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들려준다.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집 | 삼인 | 2002

성매매 여성들의 삶과 인권 실태를 여성활동가들의 눈을 통해 보여준다. 성매매의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을 심층취재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The)prostitution of sexuality

캐슬린 배리 | 정금나 역 | 삼인 | 2002

자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의 활동 인자들을 성매매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세밀하게 연결 지어 보임으로써 성매매를 발생, 유지,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숨은 주체들을 독자에게 폭로하고 그 규모의 거대함과 나아가 전지구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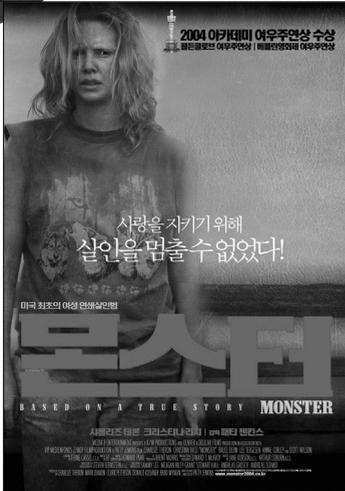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역 | 한울(한울아카데미) | 1999

성폭력, 아내구타, 일본군 위안부, 성매매, 레즈비언 등을 중심으로 우리 여성인권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여준다. 514쪽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80~90년대를 중심으로 각 분야 여성인권운동의 성과를 연구했다

성매매에 관해 추천할만한 영화는 어떤 것인가요?



몬스터 (Monster, 2003)

미국, 독일 | 범죄, 드라마 | 111 분 | 개봉 2004.6.18 | 감독 _ 팻터 젠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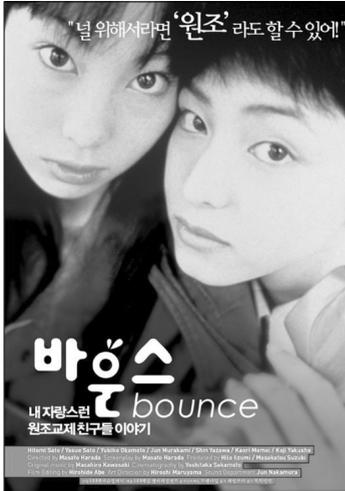
팻터 젠킨스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섯 명을 살해한 한 여자의 심리를 분석하기보다 그저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말대로 <몬스터>는 미국 최초의 여성연쇄살인범인 에일린 워노스에게 깊은 공감을 보여준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에일린은 레즈비언 소녀 셸비를 만나 생애 처음 사랑에 빠진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한 남자를 죽인 에일린은 셸비의 손을 잡고 달아나고, 살아남고자 또다시 살인을 거듭한다. 몸무게 30 파운드를 불리고 기차 치아를 덧붙여 못생긴 여자가 된 샤를리즈 테론의 연기가 놀랍다.



플루토에서 아침을 (Breakfast On Pluto, 2005)

아일랜드, 영국 | 코미디, 드라마 | 128 분 | 개봉 2007.4.5 | 감독 _ 닐 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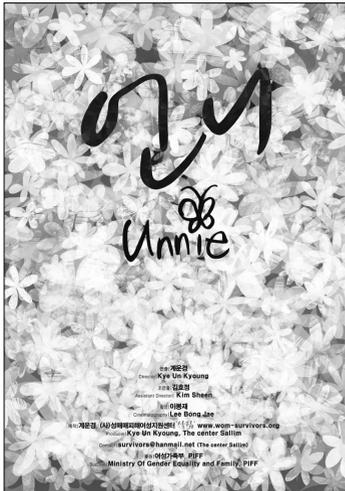
태어나자마자 성당 앞에 버려진,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아이 키튼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찾기 위해 가출하여 런던으로 간다. 하지만 키튼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현실, 게이에 대한 편견 등에 휩쓸리게 되면서 세상의 소용돌이 안으로 점점 빨려든다. 울고 싶지 않아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유머 안에서 어루만지는 감독의 원숙한 시선이 느껴진다. 우울한 현실 속에서 번득이는 유머와 배우들의 호연, 귀에 착 감기는 주옥같은 올드 팝 넘버들이 인상적인 영화다.



바운스 (Leaving, バウンス: Bounce KoGALS, 1997)

일본 | 드라마 | 109 분 | 개봉 2002.12.6 | 감독 _ 하라다 마사토

전화 연결로 원조교제를 알선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던 라쿠에게 미국행을 위해 과감한 원조 비즈니스로의 투신을 한 리사는 신기하고 새롭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 영화는 경쾌하게 완벽한 원조 친구들의 관계를 그려내지만 동시에 10대 여성들에게 원조교제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돈을 벌어서 좋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재미있어 즐기기도 하지만... 이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언니 (Unnie)

한국 | 다큐멘터리 | 85 분 | 개봉 2007 | 감독 _ 계운경

시행 이후 무수한 음모와 담론에 둘러싸인 성매매방지법. 그러나 정작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언니>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탈(脫) 성매매를 선택하고 눈을 내는 긴 마라톤을 시작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본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같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과 직업으로서 성매매를 바라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 방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물음을 던진다.



마마상 : Remember Me This Way

(Mamasang: Remember Me This Way, 2005)

한국 | 다큐멘터리 | 65 분 | 개봉 2005 | 감독 _ 김일란, 조혜영

기지촌 여성으로 살아온 양희 이모를 만나다.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 남성들을 위한 공창역할을 하고 있는 기지촌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그 목소리들에 묻혀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힘들었다. '연분홍 치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7살에 부산 텍사스에 들어가 한 평생을 기지촌에서 살아온 양희 이모를 만나러 미 공군기지가 있는 송탄에 내려갔다. 처음 우리는 양희 이모로부터 과거 기지촌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으나, 정작 이모가 주로 들려준 이야기는 현재의 생계 수단인 마마상으로서의 삶이었다. 양희 이모가 마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기지촌 여성의 현재 삶을 이해하기 위해 기지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이리나 팜 (Irina Palm)

벨기에 | 드라마 | 103분 | 개봉 2007 | 감독 _ 샘 가바르스키

희귀병에 걸린 손자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높고 능력 없는 그녀를 업계의 일인자로 등극하게 만든 이곳은 '섹시월드'의 이리나 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사정을 돕는 것이 그녀의 임무다. 그녀의 성실한 손놀림에 가지는 문전성시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이웃은 난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진지하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 성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 나이 든 여성, 성매매 하는 여성 그리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영화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상을 아무렇지 않게 '톡톡' 두들겨 깨준다.





꿈꾸는 카메라-사창가에서 태어나

(Born Into Brothels : Calcutta's Red Light Kids)

인도 | 다큐 | 85분 | 개봉 2003 | 감독_ 자나브리스키, 로스카우프만

캘커타의 사창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운명의 굴레다. 가난과 학대 그리고 절망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몸을 파는 여성과 그녀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지워진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으며 그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그 현장의 '밖'에 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감독은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들려줌으로 아이들의 탁월한 관찰력과 예술적 감수성은 물론 진짜 '안'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안'과 '밖'의 경계 때문에 카메라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경계를 없애는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낮은 목소리 2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한국 | 다큐 | 71분 | 개봉 1996 | 감독_ 변영주

중군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변영주 감독의 95년작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의 속편.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를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출의 목소리는 현재 한국 내 성폭행 발생 수치를 언급하면서 끝을 맺는다.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지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 영화 속에서 할머니들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삶의 당연한 주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를 통해 역사와 현재가 함께 한다.

〈참고 문헌〉

부록 편 “성매매에 관해 궁금하다면 도움이 되는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참고한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동원, 2007, “성구매 행위와 남성 성문화” 숙명여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김선화, 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년

Bornstein, Kate, 1998, *My gender workbook : how to become a real man, a real woman, the real you, or something else entirely*, London : Routledge.

〈영화 부문〉

- <http://www.cine21.com>
<http://movie.naver.com/>

후기

같은 책이 매번 다르게 읽힐 정도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 확실히 깨달았음. 굴러들어온 돌을 따뜻하게 잘 챙겨준 박헌 돌들에게 감사드려요. 골치 아픈 문제로 만나서 좀 힘들었지만, 우리 너털해진 해진 머리 기워서 다음에 또 만나요. 조만간 또 굴러갈게요. ㅋ 아참. 스페셜 땡쓰 투!! 콩콩숨은 영화찾기 도와준 오수, 솔직한 이야기로 연구에보탬을 준 HS

- 소윤

지난 몇 개월, 이 논의 성매매문제 때문에 나는 자아분열증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구조와 욕망의 경계에서, 혹은 그 둘의 혼재 때문에, 어느 날은 초강력 성매매 근절 주의자가 되어 성구매자 남성들과 논쟁하는 공상으로 밤을 지새웠고, 어느 날은 성매매하는 남자들이 너무 이해가 간다며 끄덕끄덕 큰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사실 작업을 마치면서 생각은 이전보다 더 복잡해져버렸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경험을 통해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성매매는 '남자/여자' 가 다르게 의 미화되고 '성'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 사회에서, 성별범주를 다시 구축하고, '여성의 종류' 를 구분하는 젠더문제라는 사실이다.

-코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아마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팀 내부에서 성매매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고 각자 규제주의자, 자유주의자, 급진주의자가 되어서 팽팽한 논쟁이 오고 갔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자료집을 만드는 것과, 여성주의자로서 우리 내부의 논쟁은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이야기들은 머릿 속을 맴돈다.

- 보짱

회의가 끝나면 온 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녹초가 되기를 반복했다. 성매매를 고민할 때면,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아직도, 모르겠다. #%%@\$**%@!

- 말로만

이번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이번 자료집은 성구매자의 변화라는 작은(?) 목표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리 쉽게 그들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작업은 앞으로의 시작일 수 있다.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성매매언니들과의 만남은 또 다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그리고 읽으면서 질문한 것들은 '동굴 속의 황제' 로만 살아 갈 수 있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결국 이론이란 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할 것이리라는 우리 팀의 사랑스러운 논쟁들은 나를 다시 흥분과 분노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 쨍

이 자료집을 펼쳐든 이들, 재미있게 읽었을까? 당신은 자신이 '남자임'에 대해 확신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성기'가? 당신의 '남성다움'이? 당신의 '성구매' 경험 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과거 나에게 던져보았던 질문들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 다른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을 보는 이들이 그런 새로운, 즐거운 여행에 동참한다면 우리들의 성적 판타지의 실현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지지 않을까?

- 불피드

저자

변혜정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이은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과정)
전보경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과정)
최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과정)
류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과정)
백소윤 (숭실대학교 철학과 석사 과정)

자문

강가람, 김애령, 김정민, 김주희, 김효정

대학생 자문

강대일, 심민경, 윤일병, 임근서

성매매, JUST SAY 'NO'

2007년 12월 인쇄

2007년 12월 발행

발행인 : 여성가족부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여성가족부

전화 / 02-2100-6600(대)

인쇄처 : 디자인이즈

전화 / 02-363-0773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11-1060100-000256-0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